

온 나라에 차넘치는 대중체육열기



공화국에서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체육의 날에는 물론 평시에도 집단달리기, 건강대련도, 대중물동체조와 여러 구기종목경기들, 유희오락경기들이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다.

대중체육경기들에서 사람들은 평시에 런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멋진 장면들을 펼쳐보이곤 한다.

은 사회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났고 어릴 가나 회열과 랑만,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고 있다.

배구, 룡구, 정구, 바드민톤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단련하며 건강한 몸으로 로동과 국방에 적극 이바지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새해의 첫 체육의 날을 맞아 각지에서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었다.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집단달리기가 진행되었다.

성, 중앙기관 공무원들은 집단달리기를 통하여 오늘의 정면들과전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의지와 함께 단결력과 조직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집단달리기에 이어 대중물동체조와 건강대련도의 박력있는 동작들이 드넓은 광장에 펼쳐졌다.

신의주광장, 강계광장, 함흥광장, 청진경기장 등에서도 집단달리기와 대중물동체조, 건강대련도와 함께 배구, 룡구, 탁구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어 체육의 날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었다.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에서도 다양한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어 새해 첫 체육의 날을 특색있고 뜻깊게 장식하였다.

대중체육열기는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가고있는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 철

사화

결 의 삼 형 제 (3)

글 박병식, 그림 채대성

바로 그루뭉에 박희준은 정희수의 집에 들어섰다. 박희준은 백여간을 차지하는 고루거각들과 산수의 자연미를 담은 깨끗한 정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숲속에서 한가히 노니는 백학, 현학들의 알연한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치 신선세계에 들어온것 같기도 하였다. 오색영롱한 단청집들이 붉은 무지개다리로 이어진 속에 우뚝 솟은 루각이더 그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녀인들과 수많은 노비들, 여기저기서 마추는 낯선 옷차림의 중국상인들... 그 모든것은 참으로 상상밖의 희한한 광경이었다.

박희준은 먼저 사랑방으로 안내되었다. 현대 아침에 이 집 울타리안으로 들어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인은 일췌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루한 하루해를 보내고 밤이 들어서야 정희수를 만날 수 있었다.

박희준은 정희수가 자수성가하여 호상으로 대감부가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두사람은 주안상을 앞에 놓고 밤깊도록 지난 회포를 나누었다. 박희준이 자기가 글공부를 마친 후 가운이 점점 기울어져서 지금은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

에 빠진 집현전을 이말저말 끝에 겨우 이야기하니 정희수는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얼굴에 병글거리는 웃음을 담는것이였다.

《형님의 처지가 그리할진대 이 회수가 어찌 모른다 하리가. 형님께 식구라야 백명이 되겠소. 천명이 되겠소. 기껏해야 열명도 못되겠는데 아무런 내가 형님께 식구들이 굶는것을 보구 아닌보살하겠소.》

《자네 말만 들어도 고깝네. ...》

박희준은 어찌서인지 더 이상 말하고싶지 않았다. 허지만 최악의 궁지에 빠진 지금에 와서 구원의 손길을 마다할수 없었다.

《내 집을 마련해드릴테이니 두말 말고 래일로 형님께 식구들을 이곳으로 모두 옮겨오시오. 그리구 오늘은 로독도 풀겸 우선 편히 쉬시오.》

정희수는 너중을 불러 박희준을 침실로 안내하게 하고 나서 첩의 방으로 건너갔다.

다음날부터 박희준은 정희수의 접방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보았다.

요즘 주색에 빠진 정희수는 장사도 귀찮아 박희준에게 저를 대신하여 장사일을 돌보게 하였던것이다. 박희준은 장사속을 알지 못하여 굳이 사양하였으나 정희수

의 강요를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무렵 정희수는 외국과의 무역은 물론 나라안에서 하는 장사도 다 뜻대로 되지 않아 손해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손발채 부화방탕하는 틈을 타서 주인을 속이며 재물을 사취하고 문건을 위조하였다. 박희준은 계산수자가 제대로 맞지 않고 사방에서 빚독촉이 성화갈아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국가통제물인 인삼이 개인장사꾼들의 수중에 집중되게 되자 조정에서는 경술(1850년)년에 개성에서 홍삼 1만 1천여근을 몰수하였다. 그중에 정희수는 자기의 인삼포전에서 거두어들인 홍삼을 남김없이 빼앗겼다. 그런데다가 위법행위를 눈감아달라고 개성류수를 비롯한 여러 벼슬아치들에게 적지 않은 뇌물을 바쳐서 장사말천까지 막아나 다 드러나지 않을수 없었다.

사태가 이쯤되니 중간에서 재물을 룡간질하던자들이 슬금슬금 하나둘 자취를 감추어버려 나중에는 책임추궁할 대상조차 없어졌다.

그때도 정희수는 주색과 투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붕찰이면 진봉산의 진달래, 자하동물짜기의 시내물, 수

인 류씨였다. 류씨는 정희수가 열여섯살때 고향에서 맞이한 안해로서 육같은 얼굴에 어진 덕이 넘치고 레철이 깎듯하며 심지가 깊은 녀중군자였다. 류씨는 남편이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금부처를 찾아서 생명의 은인 박희준에게 보낼 대신 제 아버지가 마련한 금을 밀천삼아 장사를 벌리는 행위를 절절히 질책하고 눈물겹게 타이르기도 하였으나 그럴수록 오히려 미움만 살뿐이었다.

류씨의 충고가 사그러들자 정희수앞에는 또 귀찮은 존재가 새로 나타났다. 그는 다름아닌 박희준이었다. 그는 다름아닌 박희준의 망동을 두고 친형처럼 아픈 심정으로 충고하였으며 되게 꾸짖기도 하였다. 정희수는 그것이 귀찮았고 중요스리웠다.

그때 때 정희수의 둘째첩춘매는 제 몸에 태기가 있게 되니 어떻게 하나 류씨를 내쫓고 제가 정실자리를 차지

하려고 무진 예를 쓰고있었다. 첩년들중에서 정희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는것이 춘매였다.

정희수는 저녁마다 춘매의 방에 나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정희수가 병글거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춘매는 술상을 미리 준비해놓고있다가 금잔에 술을 찰랑찰랑 부어 권하며 여느날보다 더 간지럽게 야양을 떨었다.

춘매는 정희수가 술에 얼근히 취하자 바깥 다가앉아 야릇한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류부인이 암만봐도 요즘 회준인지 《봉산택서방님》인지 하고 돌아가는 껌새가 심상치 않은가 보오이다.》

《뭐 회준이하고?》

춘매는 터무니없는 말을 내자니 속이 간지워워서 머리를 정희수의 가슴에 묻으며 술쩍 말머리를 돌렸다.

《뭐 그걸 가지고 놀랄게 있습니까. 이젠 남의 식구가 다된 사람인걸요. 류씨를 정세문중에 그냥 두었다가 아무때고 큰 화가 일어날터이니 제 집으로 보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아들을 낳으면 적자로 등록시킬게 아닙니까.》

《꽃아내네거야 뭐 힘들게 있나. 현대 회준이와 좋아하느건 사실인가?》

《홍, 눈여겨 잘 보시지요.》

《허, 그렇단 말이지. ... 이래로 앉아있을 일이 아니로군.》

정희수는 코수염을 쫓구거리며 혼자말로 중얼거리었다.

개성시 남대문에 걸려있는 고려시기의 연복사종은 1346년에 만들어 연복사(고려의 수도 개성에 있던 사찰)에 달았던것인데 1563년 이 사찰이 화재를 입자 남대문으로 옮겨왔다.

종의 크기는 아구리직경 1.9m, 높이 3.12m, 두께 0.23m이며 질량은 약 14t이다.

이 종은 고려시기의 다른 종들과 모양새, 무늬의 내용과 배치에서 서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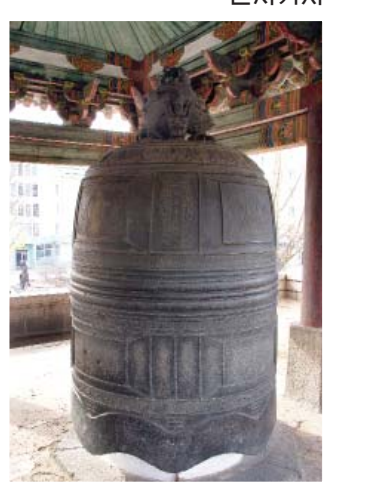
종의 몸체는 허리에 여러줄의 굵은 선을 둘러 아래우 두부분을 나누고 거기에 불상과 불경, 여러가지 문양과 종명을 새겨넣었다.

종의 아구리테두리를 매우 활동적인 굴곡으로 처리하고 그 테두리를 따라 물결을 타고 흐르는 모습으로 물고기, 룡을 비롯한 여러가지 짐승을 새긴것은 독특한 느낌을 준다.

종고리의 룡장식은 매우 생동하여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데 하다.

연복사종은 절면장식들이 세련되고 우아하며 장중할뿐 아니라 그 소리 또한 아름답고 맑아 여운이 100여리까지 퍼졌다고 한다.

연복사종



본사기자

유언

어 리 석 은 선 비

옛날 한 선비가 물고기를 먹고싶어 생선 한마리를 사왔는데 가공방법을 몰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 물고기 지저머는 방법을 종이에 적어 가지고 왔다.

자가 종이에 적은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

생선을 뱅글 뱅글 달아났다.

어리석은 선비는 따라가 생선을 빼앗을 대신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이놈아, 물고기 지저머는 방법은 내가 안다. 어디 보자, 내가 그걸 어떻게 손질해먹는가!》



송도에 가서 기생들과 함께 단풍놀이, 풍악놀이를 하며 세월을 보냈다. 겨울철에는 집안에 사당패들을 끌어들이 풍청거리고 밤은 투전으로 술과 계집을 달고가서 도를 넘어 유물로 보존되어 있는 강감찬, 최영의 집에도 술과 계집을 달고가서 차일을 치고 풍악을 울리는 지라 보는 사람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집안에는 첩년들의 싸움질이 그칠 날이 없고 장사는 날로 파산몰락하여갔다.

이를 보고 제일 가슴아파하는것은 정희수의 정실부